

» 2009년 07월 11일 (토) 01:48

## (주)일본 코마츠 電氣, '아키오' 사장

(주)한스월드의 전채천 회장과의 문화외교

독도를 일본인들은 '다케시마'로 부른다.

그러나 일본인으로는 매우 드물게 '다케시마.독도'로 부르는 일본인이 있다. 바로 일본의 인간.자연 & 과학연구소의 코마츠 아키오 이사장이다.

아키오 이사장은 천안 독립기념관에 100만엔을 헌금했던 일본인으로 잘 알려져있으며,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지금도 최고의 모토로 삼고있다.

“ 한국과 일본은 고대사로 갈수록, 한국이 일본에게 많은 문화를 소개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지금의 양국간 젊은이들은 문화.역사교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 일본학생들이 경주나 부여로 수학여행을 다녀오면, 그들은 일본 역사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알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”

아키오 이사장은 시마네 현에 있는 '코마츠 전기(주)'의 설립자이다.

그는 지금도 자주 동해와 일본해에 대한 양국간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.

“ 예전에 조선이 강했을때는 일본을 오가던 외국인들은 동해로 표기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누르고 세계 무대에 부상했을때는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. 지금 한국이나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그 어느쪽도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 양국간 대립의 양상으로 가려하지 않을 것입니다”

“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미래세계평화를 향해 나가는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. 아예 한국과 가까운 곳은 동해, 일본과 가까운 곳은 일본해, 가운데 바다는 '중해' (中海)로 부르면 어떨까 합니다”



(좌/전채천 회장 우/코마츠 아키오 이사장)

한편, 현재 경기도 화성일대에 한.중.일의 문화.역사.철학을 모아 이른바 '문.사.철 (文史哲)Center를 기획하고 있는 (주)한스월드의 전채천 회장은 최근 아키오 회장의 초청으로 일본을 다녀왔다.

전 회장은 '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각각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울수 있도록 문사철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'라면서 '이 사업은 앞으로의 新천년을 이끌어갈 중국.일본,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것'이라며 사업철학을 밝혔다.

국제부 이명근 기자